

## 오피니언

## 금남로에서

조경완



그의 눈은 늘 젖어있는 듯 했다. YS에 패해 영국으로 떠나던 공항대합실에서도, 대통령이 된 뒤 금모으기로 벌이는 국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때에도, 아들들의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때에도 그는 막 울음을 터뜨리려는 소년과도 같은 표정이었다. 심지어 김정일과 포옹을 할 때에도, TV 대답프로에 나와 조크 섞인 비유를 할 때에도, 노벨평화상을 받고 수상소감을 발표할 때에도 그의 눈은 촉촉했다.

그는 눈물이 많은 지도자였다. 광주 망월동에서의 통곡, 노무현의 미망인을 불잡고 터뜨리던 그의 큰 울음은 눈물을 금기시해온 한국의 남자들에게 묘한 페이소스를 주는 것이었다.

그는 눈물을 아는 지도자였다. 소외받고 핵박받고 견신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땅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신난(辛難)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 이었다. 넓게는 질병과 기아, 독재에 시달리는 세계의 모든 슬픈자들, 좁게는 남북 이 갈리운 채 자식교육하나에 매달리며

죽어라 일해온 국민들, 더 좁게는 3공화국 아래 2류국민으로 살아온 호남 사람들의 눈물을 아는 지도자였다.

그의 눈물은 한없는 고독과 죽음에의 공포, 그리고 그것들이 불러온 살아있는

## 그가 없는 아침에

것들에 대한 외경심에서 나왔을 것이다. 인공(人共)때총을 면한 것이나 동경 납치사건 때 천행으로 살아난 것이나 신군부에게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풀려난 것들은 그를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에 접착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극단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버리고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 그에 대한 대답은 결국 그의 신앙이기도 한 가톨릭의 가르침, 사랑이었을 것이다.

목포에서 태어나 자란 필자의 어린 시

절 유달국민학교 운동장에선 신민당 국

회의원후보 김대중과 공화당후보 김병삼 씨의 유세가 열렸다.

얼굴에 철망 마스크를 한 경찰들이 빙둘러선 가운데 인산인해의 청중들이 “먹고 보자 김병삼 찍고 보자 김대중”을 연호 하던 열광적 장면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그로부터 몇년 뒤 이번엔 대통령후보가 되어 목포역광장에서 연설을 하던 그의 하이툰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지금 박정희 후보 당선을 위해 억지 표를 찍어야 하는 공무원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유감이 없습니다. 다만 부정선거만은 막

말없이 헐칠 울던 모습은 또 어찌나 깊게 기억되던지.

필자는 이언제 이회창후보와 함께 그가 대통령선거를 치르던 때 후보 부인들을 초청한 한 대담에서 그의 부인 이희호씨가 한 말도 잊혀지지 않는다. 각자 남편자랑을 해보라는 사회자의 말에 다른 부인들은 “정의감이 강하다” “거짓말을 안한다”는 등 빤한 대답을 하는데 그의 부인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꽃과 동물을 사랑하시고…” 아마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가 지난 날 전라도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금남로의 빈 택시들은 언제나처럼 길에 들어섰고 손님 없는 식당의 찬모는 애잔한 얼굴로 TV 속보만을 하릴없이 응시했다. 또약발 내리쬐는 목포의 오거리도 동명동 선창가도 상심의 침묵만이 허공을 메웠다.

이젠 사실이 꽈배린 그의 부재를 누가 그럴싸하게 논한들 귀에 들리겠는가. 유행만 전라도 사람 모두가 저마다 아웃한 그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잊은 것은 대 정치가도, 한 시대의 사상가도, 세계적 평화의 사도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을 잊었다. 사랑할 줄 아는 모두의 애인을 잊었다.

〈편집국장〉 kyc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서미정



최근 장애인 여행자 보험가입 차별 진정관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중개함에 있어서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한도가 낮은 상품을 중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사에게 인권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함과 더불어 감독기관이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전화이다.

청각장애인의 차별상담전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상전화기와 수화통역사이지만 아직 준비단계로 한국농아인협회는 기준의 070-7947-0001의 청각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사용하여 청각장애인의 차별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창구역할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전국네트워크 상담전화는 7월에 개통되어 전국동시다발로

## 장애 차별 받았을 때 1577-1330 누르세요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이 보험가입에서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시행한지 1년이 지났다. 이 법은 장애 때문에 생기는 ‘차이’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한 법이다. 장애 차별 때 문에 인권위에 진정한 사례가 지난해 746건에 이른다. 2007년(239건)에 비해 3배나 늘었다. 교통·이동 수단에 대한 고충이 348건으로 전체의 30%를 넘었고, 고용문제도 74건이나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의 특성상 오랜 차별로 인해 고교이나 소득 수준 등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접근성이거나 활용이 쉽지 않는다는 단점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해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장애법을 활용하고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일상에서 보다 손쉽게 활용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단순히 장애인 개인구제에서 끝나는 상담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인식하게 하여 전체 장애인의 권리와 신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이다. 인권위 진정 등 개인이 해나가기 힘든 문제를 도와 우리 사회에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애인차별 상담 및 법률지원, 차별 대응을 통해 죽적된 사례는 장차법 시행 모니터링뿐 아니라 향후 장애인 차별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장애인차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대응방안 혹은 법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부설 사랑모아주간보호센터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 위로금을 장애인 성금으로 쾌척한 주부에 감사

필자가 불사활동으로 나가는 장애인 복지 시설에는 항상 둑북히 찾아와 봉사를 하고 계시는 50대 중반의 아주머님이 계신다. 그분은 가끔씩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적잖은 물과 라면 같은 것을 놓고 가시기도 한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른 곳을 통해 우연히 그분이 조그만 미장원을 하는 평범한 주부시라는 것을 알게 됐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분이 감기로 심하게 걸려 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서둘러 병문안을 갖

▲전연희·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더니 그분 따님이 하얀 봉투를 주며 “친지들이 병원에 물을 뿐만 아니라 환자인 친구를 부축해 가는 필자나 환자인 친구를 부축해 가는 고역이 매한가지였다.”라고 병문안을 갖다. 그런데 병문안을 간 병원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병원은 분명히 금연건물인데 일부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화장실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흡연마저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웠는지 특별히 제지하는 사람들을 없었다.

가뜩이나 몸이 불편한 환자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방문객들은 화장실 가실 때마다 흡연자들이 스스로 자제하는 수밖에 없고, 굳이 피우고 싶으면 잠시 건물 밖으로 나가거나 며느가 아쉽다.

얼마 전에 친구가 눈에 물을 뿐만 아니라 봉투를 주며 “친지들이 병원에 물을 뿐만 아니라 환자인 친구를 부축해 가는 고역이 매한가지였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를 부축해 가는 필자나 환자인 친구는 고역이 매한가지였다.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약한 것 같다. 하물며 담배가 절대 해로운 환자들이 있는 병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온 통 때문에 연기로 뒤덮는 것은 깊이 새겨봐야 하며 반성해야 하는 일이다. 병원에서도 이를 일일이 제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니 흡연자들이 스스로 자제하는 수밖에 없고, 굳이 피우고 싶으면 잠시 건물 밖으로 나가거나 며느가 아쉽다.

▲유지영·목포시 수강동

시 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서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을 잃은 우리의 슬픔은 너무나 크다. 전직 대통령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최고 통치권자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가 가야 할 바람직한 길을 제언해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몇 안 되는 원로다. 그런 전직 대통령들을 떠나보냈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국민적인 불행이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애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궤를 같이 해 왔다. 김 전 대통령은 시대의 격랑을 온몸으로 헤쳐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쳤다.

고인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호남의 변호는 지지 덕분’이라고 말해 왔던 김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주요 행사 때마다 호남을 방문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2000년 현직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묘지에 참배하기도 했다.

우리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것은 단지 호남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고인은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을 위해 독재정권과 온몸으로 맞서 싸운 인권 운동가이자 시장 경제를 실천한 정치인이었다. 그의 정치역정은 서슬퍼런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려는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했던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그의 일관된 정치 철학은 때로는 상처 뿐인 영광으로, 때로는 호남인에게 빛과 그림자가 되기도 했으나 건국이래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라는 신기원을 이끌었다.

한국 노동자들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 한반도 화해무드가 조성됐고 그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고인이 추구해왔던 정치 철학과는 괴리가 크다. 김 전 대통령이 일생을 다해 노력해 왔던 민주주의는 뇌물하고 있다. 서울광장은 다시 닫혔고, 생존권 투쟁을 하다 희생된 용산참사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심혈을 기울였던 남북공존과 화해 노력도 위기에 처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냉각된 남북관계는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한때 존폐위기를 맞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기조였던 핵발전은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식으로 편파되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달대에 쉽사리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측면이 많다. 상당수는 역사의 뒷으로 남겨진다. 이념과 입장에 따라 지지자나 반대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해 한국정치사의 신기원을 이룩했고 지역주의 타파와 권위주의 청산에 기여한 점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민주화, 분권화 노력과 억눌린 소수 층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자 김 전 대통령이 일생 동안 추구해왔던 신념이기도 하다. 고인이 추구해왔던 민주와 인권, 남북 화해의 정신은 이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 無等鼓

우리나라 출산율이 기막히다. 올해 주력 출산층인 25~34세 여성인구가 사상 최대로 줄어들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출산율 0점대’ 쇼크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전히 여기서 나온다.

더욱이 일부 기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일 경우 내년 출산율은 1.08명, 1%대면 0.85명에 그친다는 전망까지 나와 0점대 출산과 함께 시간문제일 것 같다.

출산율은 15~49세 가입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결국 올해 마지막으로 출산율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출산율 1명도 초기자기기능을 높이 드는다.

인구학자들이 ‘재’양으로까지 부르고 있는 이같은 사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점차 악화되는 인구구조와 2007년 황금돼지해의 후유증도 있긴 하나, 출산은 급락의 직격탄은 경제난 때문이라는 게 설득력이 높다.

1998~1999년 외환위기 여파로 2001년부터 출산율이 급락했는가 하면, 다

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따른 국내경기 한파로 인해 임신을 꺼리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 저출산 추이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통계만 봐도 그렇다. ‘먹고 살 것은 저마다 타고 난다’는 얘기는 옛말이 돼버린 것이다.

0점대 출산율은 국민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줘 집단 패닉사태가 우려된다. 인구증가율이나 성장동력 약화 등과 맞물려 금융위기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은 한심하다.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 저소득층을 겨냥한 보육비나 양육수당 지급 등에 그쳐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출산장려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 휴직급여도 쥐고리에 불과해 신청자수는 미미하다.

잘 갖춰진 공공보육시설과 휴가제도 등을 통해 70%가 넘는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유지하며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 덴마크의 사례가 해법이 될 수는 없을까. /이종태 사회2부장 jtlee@kwangju.co.kr

##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舉辦社長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 2부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면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